

자주국방과 통일의지



朴 甲 壽 통일원 과장



우리들은 독일이나
에멘의 통일보다 더욱
모범적으로 통일을 성취할수
있도록 조용하게 통일의지를
다지면서 안보의 질을 내실있게
높여나가 북한 스스로가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도록
국력과 통일역량을 신장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세계질서가 정치이념과 군사 중심에서 경제 및 과학·기술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은 새정부 출범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 및 통일 환경에서 안보와 통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중에도 지금까지의 안보논리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통일논리가 아직 자연스럽게 접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그룹과 진보 그룹간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도 다소간의 갈등을 던져 주고 있다.

보수그룹은 6·25전란이후 부터 나타난 북한의 행태와 땅굴, 테러 등 도발 사례에 비추어 북한의 이중적인 접근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적화외지를 단연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비해 진보그룹에서는 북한도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만형의 입장에서 인내와 관용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면서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00만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군사력 증대에 결집시키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양면성을 가진 북한체제의 속성으로 볼때 모두 일리가 있고, 우리측의 대응자세나 선도방안에서 한가지 방편만으로 효과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불세비키로 부터 시작되는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으로 정권을 쟁취한 후, 시종일관 혁명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며 폭력을 키우고 관리해 왔다.

때문에 대외적으로 군사력의 균형은 혁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내적으로 공안부서와 군부지지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북한정권 역시 이러한 폭력과 혁명의 악순환에 최면 걸려 있는 상태로 「우세한 군사력유지」와, 혁명대상에 대한 「적개심 고취와 통일열기」로 반세기 가까이 독재정권을 지탱해 올 수 있었다.

북한은 이처럼 맹목적인 통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배분체계에 있어 극도로 비생산적인 병영국가(Garrison State) 형태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군사력과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에 내세울만한 경쟁력있는 분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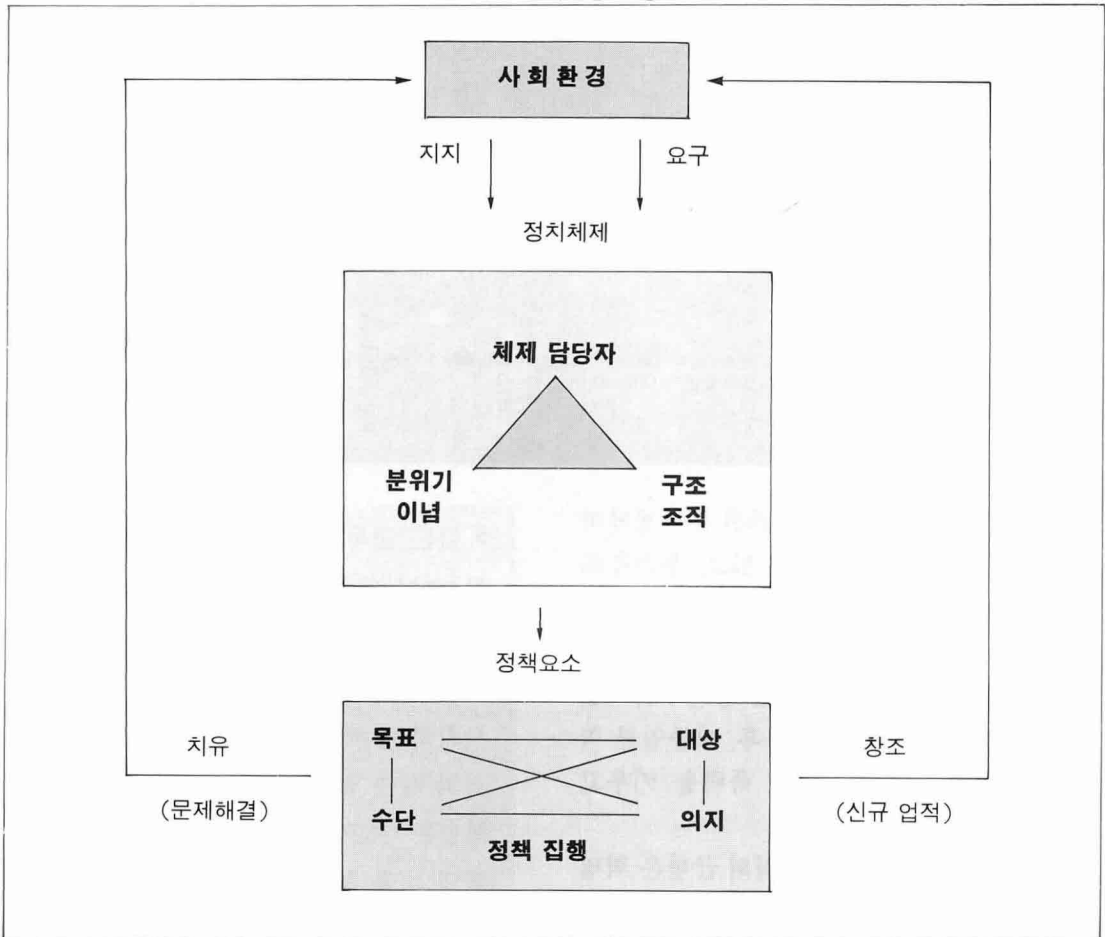
북한은 맹목적인 통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배분체계에 있어 극도로 비생산적인 병영국가형태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군사력과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에 내세울만한 경쟁력있는 분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GNP 대비 군사비, 인구 대비 병력의 비율 등에서 모두 세계 최상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의 재정을 당과 정무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하며, 오로지 군은 김부자정권의 최대,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GNP('92. 12 현재, 211억불) 대비 군사비(55.4억불), 인구('92. 12 현재 2233.6만명) 대비 병력(103만)의 비율 등에서 모두 세계 최상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의 재정을 당과 정무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오로지 군이 김부자정권의 최대,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 정책결정 모형



위의 표는 일반적인 정책결정모형을 보여주는데, 사회환경이 정치체제(체제주도집단, 이념 및 분위기, 조직·구조)에 대해 지지 또는 요구하여 정책요소(목표, 대상, 수단, 의지)가 이루어 진후, 문제해결의 「치유적 결과」나 또는 신규업적을 가져오는 「창조적 결과」를 산출시키게 되고, 다시 이것이 사회환경에 재투입되는 순환과정을 겪게 된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러한 모델에 원용시켜 보면, 국제정세등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김부자를 정점으로 하는 고위층들의 태도 및 통일관, 전쟁대비를 강조하는 긴

장분위기 고취 및 군사우선정책, 전민족적 통일전선형성을 위한 당 통일전선부, 작전부등 대남사업부서들의 활동양상에서 아직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 그룹들은 이와같이 정책산출에서 「치유」나 「창조」보다는 「혁명」이라는 비합리적, 비생산적 도그마에 빠져 이를 반복하고 있고, 통일·혁명이라는 편집적 망상체계(Paranoid Delusion)에 의해 심층적 분석과 직관 보다는 감정과 습관에 의존하는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남정책담당그룹이 상부의 정서에

영합하는 왜곡정보 보고 및 조작으로 비현실적 정책대안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一 例로 북한의 고위직 인사에게 한 외국 기자가 『경제난이 이토록 심한데 왜 대남사업에 그렇게 많은 인적, 물적투자를 계속하고 있는가?』하고 질문하자, 그는 『남조선이 넘어지면 전부 우리의 것』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또 경제협력을 위해 방북한 재벌기업의 한 중역에게도 『마음 독하게 먹어 내려가면 우리 것』이라고 현실에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NPT탈퇴선언이후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의(북한식의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토론이나 합의등 민주적 절차보다 비합법적 폭력적 수단에 익숙한 북한의 생리로 볼때 군사력은 가장 큰 경찰력으로 체제유지에 활용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체제확산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된다.

북한지도층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군 중심적 사고와 군사우선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힘에 의한 목적달성」, 「패자는 곧 죽음」이라는 잔인스러운 혁명투쟁사에서 습득된 폭력우선적 인식과 mind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오래전부터 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줄이고, 60년대 일부 개혁세력이 제의한 가치개념의 화폐경제를 도입해서 수정노선을 채택하였다면, 현재의 남북한 위상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비록 북한은 힘의 논리에 따라 군사국가로

선진 전략무기 개발에 본격적인 연구나 투자도 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 생산의 라인은 중지되는 등,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53%에 불과한 우리들의 입장은, 마치 손톱이 굵고 빠진 선수가 외제 글러브만 끼고 대응하려는 듯 지극히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생산동원이 보장되어야 하고 통일전이나 후에라도 주변국들의 무력시위, 또는 무장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방어능력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변모해 왔고, 이로서 체제 보전은 물론 전략 무기까지 개발 수출하며, 외교와 협상에서도 약간의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때 마치 사회주의 경제의 마지막 나뭇잎인양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하기도 하나,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이 이처럼 국가파산의 경지에 임박해 가면서도 군사역량에만 의존하여 군사카드로 대내외에 봉착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때 더 큰 문제들과 비극이 수반됨은 필지의 사실이다.

우리로서는 압도적인 경제역량을 군사역량으로 전환시켜 북한을 제압시켜야 하고, 현 방어선을 고수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현대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사용될 시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처럼 인구의 4분의 1이 감소하거나, 6·25전란과 같이 300

여만이상의 동족들이 희생되고 전국이 폐허화되는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김부자와 북한의 정책결정 담당자들이 오관하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확고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체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민생·치안문제를 포함하는 내치역량 증대와 함께, 경제전과 기술패권주의시대에 겨룰수 있는 과학문화창달 및 고급기술개발에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同型인 AL-ABBAS ABM



전력투구하여야 할 것이다.

EC, NAFTA, UR 등 신국제질서가 형성되어가고 경쟁력의 보유여부로 국가의 위상이 결정되어가는 이시기에 이르러, 개혁과 개방에 관련한 확고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보여지지 않는한 우리로서는 군사·경제·과학기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위산업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다.

첨단과학기술이 요구되는 방위산업은 에너지변조기술, 체계공학, 음향 및 자기 Sensor, 신호처리, Laser, 각종 제어기술, 신소재 및 생명공학 등을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의 발전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토대가 신군사력 건설과 직결되어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실현과 함께 과학기술 선진 7개국으로의 진입에도 전하는 접근로를 제시해 줄 것이다.

자주국방은 우리들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로 안보를 뒷받침할때 가능한 것이지, 외국의 성능좋은 제품만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언제까지나 의존국방내지 종속국방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선진 전략무기 개발에는 본격적인 연구나 투자도 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 생산의 라인 은 중지되는 등,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53%에 불과한 우리들의 입장은, 마치 손톱이 굵고 빠진 선수가 외제 글로브만 끼고 대응하려는 듯 지극히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생산동원이 보장되어야 하고 통일전이나 후에라도 주변국들의 무력시위, 또는 무장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방어능력을 잠재적으로라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의 30%정도를 근 30년 가까이

군사비로 사용해 왔으면서 아직도 북한의 위협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정책효과분석 또는 원가관리 및 투자분석등 경영개념에 입각해서 군은 뼈를 깎는 재평가작업을 실시하거나 재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일부 업체의 연구진들이 의식을 갖고 제품개발에 노력하여 구난전차, 장갑차, 저고도탐지 레이다 등 경쟁력이 있는 몇개의 우수제품을 개발완료함으로써 우리 방산의 잠재력을 다시 엿볼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民·軍 공용의 미디움 또는 하이테크 제품 개발이 보편화되지 않는 현상태에서는 자주 국방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의 비중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방정책도 통일정책의 각단계와 결부시켜 추진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다.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3단계의 통일과정을 설정하여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정치·경제적 공동체로서 통일국가로 지향하는 정책지침을 제시하였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줄이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민족동질성을 촉진시키고, 통일국가단계에서는 정치통합을 이루어 민족공동체를 완성한다.

이 3단계 통일정책은 과거 민족화합민주 통일방안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정신과 맥락을 이어받아 새시대에 적합하게 창출한 것으로, 신뢰구축과 위협감소조치등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국방정책도 이와 연계 조정되어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자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보의 토대위에 통일을 촉진시켜야 하는 당

북한지도층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군 중심적 사고와 군사우선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힘에 의한 목적달성」, 「패자는 곧 죽음」이라는 잔인스러운 혁명투쟁사에서 습득된 폭력우선적 인식과 mind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오래전부터 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줄이고, 60년대 일부 개혁세력이 제의한 가치개념의 화폐경제를 도입해서 수정노선을 채택하였다면, 현재의 남북한 위상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성과 함께, 민족사회의 평화통일의지를 고양시켜 민족발전의 논리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통일열기나 통일에 대한 관심보다도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정책의지와 정책수단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 「한걸음에서부터」등 실천적인 구호를 제시하며 저력을 키운 결과, 결정적인 시기에는 별도의 저항 없이 순탄하게 통합을 가속화 시켰다.

우리들은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보다 더욱 모범적으로 통일을 성취할수 있도록 조용하게 통일의를 다지면서 안보의 질을 내실 있게 높여나가 북한 스스로가 남북기본합의서와 UN현장의 정신처럼 무력불사용 및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선 국력과 통일역량을 신장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